

오늘의 날씨와 생활

3월 10일 화요일 음 2월 16일 (8물)

기상정보

호리고 비

제주도는 호리고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9~12°C, 낮 최고 기온은 10~14°C의 분포를 보이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박우가 짙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2.0~4.0m로 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70%	제주	20%
70%	성산	20%
70%	고산	20%
7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7/12°C

모레

구름 많음

5/15°C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관심

감기가능지수

보통

월드뉴스

사우디 왕세자, 국왕 즉위 임박설 제기

왕위 경쟁자 잇단 체포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왕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잠재적인 왕위 경쟁자로 꼽히는 가까운 친족을 반역 혐의로 체포했다고 서방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했다.

이들 두고 무함마드 왕세자가 사우디 국왕에 즉위하는 시점이 임박하면서 이들 경쟁자를 미리 단속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무함마드 왕세자의 아버지인 살만 국왕의 건강이 최근 상당히 악화했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사우디 왕가 소식통을 인용해 빈 나예프 전 왕세자와 그의 남동생 나오프 빈 나예프 왕자, 살만 국왕의 남동생 아흐메드 빈 압둘아지즈 왕자 등 왕실 인사 3명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무함마드 왕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세자에게는 사촌 형제와 삼촌이 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러한 일들을 무함마드 왕세자의 왕실 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무함마드 빈 나예프 왕자는 왕위 계승 1순위였지만 2017년 6월 왕세자 지위와 내무장관에서 물러났다. 이는 당시 부왕세자(제2 왕위계승자)였던 무함마드 왕자를 왕세자로 책봉하기 위해 압박을 받았다는 관측이 유력했다.

다만 사우디 국영 SPA통신은 8일 주우크라이나 사우디 신임 대사를 접견하는 사진을 보도해 건강이상설을 간접적으로 부인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운

☎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한라칼럼



이 윤 형

선임기자

희망차야 할 새로운 십 년대(decades)의 첫해가 출발부터 혼란스럽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 앞에 지구촌이 떨고 있다. 지난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두 달 가까이 흘렸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안과 우울감이 짙어지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 즉 팬데믹을 우려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무서운 전파력을 보이는 코로나19도 계절의 변화는 막지 못한다. 만물의 이치는 영락없다. 계절은 어김없

이 풍진 세상... 봄은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

이 돌고 돌아, 봄이다. 꽃은 어김없이 핀다. 복수초도 진작에 노란 꽃망울을 피워냈고, 변산바람꽃, 노루귀도 고운 자태를 드러냈다. 이 풍진 세상이지만 그래도 봄은 봄이다.

유행가 가사처럼 이제 얼마 없으면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꽃망울을 터트릴 것이다. 한라산 선악지왕이 연분홍 털진달래 물결로 넘실댈 날이 머지않았다. 그럼에도 한겨울을 이겨낸 꽃을 보아줄 마음의 여유를 느끼지 못한다.

봄을 느낄 새도 없다. 그야말로 춘래불사춘이다. 꽃샘추위 탓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은 잔뜩 움츠러들었다. 가난한 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그렇다. 경제는 끝모를 위기에 처했고, 공동체는 활력을 잃었다. 동료나 지인, 이웃끼리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야만 안심이 되는 현실 앞에서는 웃을 수도 없다.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다보니 각

자도생만이 살길인 것처럼 돼 버렸다. 허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때로는 사회로 인해 상처받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 사회로 인해 치유를 얻고 희망을 보기도 한다. 우리 인간 종이 오늘날 존재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10만 년 전까지도 지구상에는 최소 여섯 가지 인간 종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온갖 악조건을 이겨내고 오늘날 살아남은 종은 하나뿐이다. 인간, 즉 호모 사피엔스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서로 돕고 소통하는 높은 사회성을 지닌 때문이다. 고립주의, 폐쇄주의는 외톨이만 될 뿐이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는 역설적으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연일 감염증과 필수적으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은 말할 것도 없다. 자원봉사자들은 기꺼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불심양면 크고 작은 도움의 손길은 이어진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연대가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코로나로 각자도생이 당연시되다시피 한 세상이지만 그럼수록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

문제는 정치다. 코로나19 와중에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것은 정치권이다. 국민이 없는 정치는 해악일 뿐이다. 지난 정권이 반면교사다. 그럼에도 국민 건강과 생명보다는 정파적 손익계산에만 몰두한다. 바이러스보다 더 큰 문제는 정치가 아닌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광장의 봄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어 여전히 혼돈스럽고 불안하지만 잊지 말아야 한다. 누가 코로나19로 힘들고 고통받는 현실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하려 했는지를. 그리고 이를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절박함 속에서도 4·15 총선 시계는 돌아간다. 봄은 저절로 오지만 그 봄을 어떻게 맞이하는가는 스스로에게 달렸다.

열린마당

청렴, 탐욕 그리고 희소성



임 광 철

서귀포시 마을활력과장

인간의 탐욕이 희소성을 만들어 낸다. 희귀한 것과는 다르다. 탐욕이 클수록 희소성이 커진다.

희소성은 부족하다는 의미다. 부족은 갈등과 혐오를 만들고 불안정한 사회를 만든다. 그리고 부정을 만들어 낸다. 그런 면에서 공무원의 청렴, 시민사회의 청렴은 탐욕을 통제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서로를 아끼고,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탐욕을 통제하게 된다. '더불어'라는 가치는 곧 청렴의 가치와 연결된다.

어떻게 하면 '더불어'의 가치가 깊어질까? 내가 속해있는 연결된 고리를 느슨하게 해야 타 집단에 대한 관용이 높아지고 '더불어'의 가치가 깊어진다. 또한 개인의 탐욕, 집단의 탐욕이 줄어들면서 공정의 가치가

커져간다. 청렴은 공정이라는 의미를 더할 때 멀리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탐욕을 통해 희소성을 높이고, 빈부격차를 만들고, 특정한 혜택을 만드는 시대는 넘어서야 한다. 대규모의 행정에서 소규모의 행정으로, 이익 집단과 단체의 행정에서 보편타당성을 가진 시민의 행정, 공동체의 행정으로 발전해야 한다.

소규모의 행정을 통해,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농정 자금이 들어가고, 소규모의 가게를 하는 시민에게 정책 자금이 우선돼야 사회 전체의 행복이 커지고 청렴의 가치가 커진다. 그리고 소시민이 시정과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야 한다.

성장을 논하기 전에 행복·청렴·공정이 우선이다. 큰 원칙 속에서 이 원칙이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 하지만 청렴만큼은 그리고 탐욕을 절제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도록 노력하자. 이런 노력이 작지만 의미있는 발자국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청렴이 필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희망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같이 모두가 함께.

3월의 절세팁, 자동차세 연납신청



최 보 연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요즘 코로나19로 우리의 생활이 일상에서 격리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조금이라도 절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덤프트럭 및 믹서트럭 소유자라면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낸다.

자동차 면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6월에 한 번만 부과하면 된다. 그러나 정기분 부과기간이 아닌 3월 말까지 미리 시정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납 신청 한다면 연자동차세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신고·납부를 한다면 면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월에 연납신청을 놓쳤거나 신규로 자동차를 취득했다면 3월이라도 신청해 절세혜택을 누려보자.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의 세무부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ARS(1899-0341) 혹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일(폐차 말소일)이후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다만 환급계자는 해당지자체 세무과에 알려줘야 한다.

만약 자동차를 이전한 이후에 자동차세가 나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고지서의 과세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후불제 개념의 세금으로,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한 후 다음달에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되기 때문이다.

3월의 절세팁,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잘 활용해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양복점 제일사의 약속

모델비례 체형맞춤정장

30년 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http://www.cheilsa.co.kr>

제주시 이도1동 1180-12 TEL: 722-0914 FAX: 722-9098

최고급복지	맞춤정장	100만	40만
고급	"	60만	35만
보통	"	35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콤비	60만	30만
고급	"	40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바지	25만	12만
고급	"	15만	8만
보통	"	10만	6만
와이셔츠	맞춤셔츠	8만	5만

영역시간: AM 9시 ~ PM 9시 영요일은 없습니다.

NAVER

제 일 사

검색

제주대방면

신제주방면

화북방면

도남오거리

동행남부지점

버스정류소

제주시청

광양로터리

문예회관

중앙로방면

터미널방면

제주소리샘

원장 송시봉

잘 안들리십니까?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와 함께 하십시오.

①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미국 스타키와 마이크로텍사의 제품을 취급합니다.

② 소리샘 디지털 보청기는 고객의 청력에 적합한 올바른 보청기 상담 및 A/S를 책임집니다.

■ 신경성, 노인성, 소음성 난청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 상담 가능

소리샘 보청기

TEL. 753-5347

제주시 삼도1동 507-3(2층)

본 광고는 사전심의필 2007-GN1-25-0147

광양

오라파초소

터미널

신제주

한국병원

소리샘 보청기